

[산업보건정보]

일본의 산업간호제도



정혜선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산업간호학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일본 동경 Ariake University의 Satori Kakemoto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의 산업간호제도'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Kakemoto 교수는 일본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부회 이사를 맡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 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일본의 산업간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에서 간호사 면허제도

일본의 산업간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간호사 면허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일본의 간호사 면허제도는 간호사, 보건사, 조산사, 준간호사 등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간호사, 보건사, 조산사는 후생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이고, 준간호사는 도도부현에서 발급하는 면허이다.

간호사는 우리나라처럼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경우이다. 보건사와 조산사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경우이고, 3년제를 졸업한 경우에는 간호대학에서 1년 과정을 추가로 더 이수해야 한다. 준간호사는 정규 간호학교에서 2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준간호사를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의 준간호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우리나라처럼 사설교육기관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간호사 면허제도에서 특이한 것은 보건사제도인데, 보건사는 간호사와 동일하게 간호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으로, 과거에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경우 간호사 또는 보건사 면허 중 하나를 선택하였으나, 이제는 보건사도 모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도록 변경되어 간호사 면허를 갖

지 않고 보건사 면허만 갖고 있는 경우는 과거에 졸업한 일부 사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보건사는 간호사를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사가 간호사와 다른 직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보건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간호사보다 상급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사는 지역사회간호 분야인 보건소,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발한 제도로써, 일본에서는 지역사회간호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임상간호 분야보다 더 많은 수업을 받아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일본의 산업간호사

일본에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인원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간호사 877,182명(66.3%), 보건사 43,446명(3.3%), 조산사 27,789명(2.1%), 준간호사 375,042명(28.3%)으로 총 간호사 인력은 1,323,459명이다.

일본의 보건사는 대부분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사는 3,524명이다. 일반 간호사는 대부분 임상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7,295명이다. 즉 10,819명의 간호인력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산업간호사를 사업장에 배치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생관리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5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별도로 위생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위생관리자로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다. 즉 보건사로 근무하는 간호사는 대부분 위생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간호사 중에서도 위생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 위생관리자로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즉 일본에서는 위생관리자를 법정 의무인력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사는 법정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1만여명에 이르는 간호사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 자격 중의 하나로 하여, 법적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2010년 기준으로 2,294명의 간호사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자율적으로 간호사를 사업장에 고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는 '노동위생 컨설턴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산업간호사도 시험을 통해 노동위생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서 보건사는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정하고 있는데, 보건사의 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57.7%, 건강진단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50.2%, 정신보건관리를 하는 경우 21.0%, 생활습관병관리 14.8% 등이다.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보건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일본의 산업간호교육

일본의 산업간호 교육은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부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위생학회'는 산업보건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학회로서 학회 산하에 산업의학부회, 산업간호부회, 산업위생부회가 있다. 즉 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이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학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위생학회'라는 하나의 학회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학회 내에서 분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부회에서 운영하는 산업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정기적인 재교육의 시행, 전문성 향상, 실무능력 고양, 기초적인 지식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주된 내용은 산업간호론, 대상자의 이해, 산업간호 활동을 위한 지식, 산업간호사의 직무와 역할, 산업간호 기술에 관한 것이다.

산업간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학부 과정의 간호교육에서 산업간호에 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간호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학부교육에서 산업간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동일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산업간호 활동과 보수교육에 대해 사업주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도 향후에 해야 할 주된 과제라고 하였는데, 산업간호사를 법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업주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산업간호 역할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에 산업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맺음말

우리나라는 산업간호사를 법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면, 일본은 법적 기준은 없지만 사업주가 산업간호사를 자율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산업간호사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일본의 산업보건은 주로 산업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소개되었으나, 금번 세미나를 통해 일본에서도 산업간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갈수록 산업간호사의 역할이 커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분야의 활동을 위해 임상간호 분야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일본의 보건제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본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보다 많은 교류를 통해 양 나라의 산업간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면 각 나라의 산업간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Kakemoto 교수의 일본의 산업간호제도에 대한 발표